

행복한교회 목장 예배 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목자목녀님들께 배포해드린 목장모임 표준안 참조)

1. 식사 모임 (애찬)

-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밥=가족, 간식=손님).
- VIP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집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자녀와의 시간 (올리브 블레싱)

- 자녀가 한 명(태아포함)이라도 있으면 모든 목장에서 반드시 올리브블레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올리브블레싱의 목적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족공동체(목장)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들끼리 앉지 않고 어른들이 사이사이에 앉아서 찬양 1-2곡을 부릅니다.
- 나이순으로 감사한 것과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눕니다(목회일기에 포함).
-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 어린이 목자 또는 어른 목자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 목장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없을 경우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 올리브블레싱 후 어린이 목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목장을 따로 진행합니다.

3. 찬양을 통한 경배(worship) - 찬양부장이 인도

4. 지난주일 말씀 나누기(20분 이내)

- 말씀나누기 진행자가 담당합니다(성경지식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기에 초신자가 맡으면 좋습니다).
- 모든 목원이 간단하게 돌아가며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나눕니다.
- 2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나누는 중 다른 사람이 끼여들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수준에서 깨달은 내용을 나눕니다.

5. 연합교회 광고 나누기

- 주보를 활용합니다.(VIP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6. 목회자 칼럼 읽기

- 지난주 목회칼럼을 읽어줍니다.(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 공유)

7. 목장 약속문 함께 읽기

8. 삶 나누기

- 지난주 기도제목에 대해 응답받은 내용이 있으면 먼저 나눕니다.
- 감사했던 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나눔 시 “기도하면 됩니다” 식의 교과서적인 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성경구절만 인용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붙들고 승리한 경험을 말해야 합니다.
-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 목장에 나온 지 오래된 분은 깊이는 유지하되 핵심만 간단히 나누고 VIP 등 새로 오신 분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9.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 모든 나눔 후 두 명 정도씩(부부, 가족 등) 묶어서 짧게 중보기도합니다.
- 목원 가정에서 모임을 가진 경우 마지막에 목자가 장소를 제공한 목원을 위해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0. 선교지와 VIP를 위한 기도

- 후원 선교사님 소식이 있으면 나누고 선교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 VIP는 가족, 친지보다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 자주 만나고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VIP를 위한 중보기도문을 활용합니다.

11. 목회일기 작성

목장모임 말씀 나눔지

(3월31일 주일설교/마가복음16:1-8중 발췌/일상을 통해 전하는 부활의 복음)

1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2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4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5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6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8 그들은 뛰쳐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요즈음으로 말하면 금요일이었습니다. 즉 토요일인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시신을 바로 매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더욱 급하게 진행된 이유는 해가 지면 바로 안식일이라서 아무 일도 하면 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 본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히셔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도 “떨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물론 멀리 선 그 여인들이 대단하게 보일 만큼 제자들은 그 멀리에 머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여인들을 소개하고 나서 마가는 지금까지 한번도 말한 적이 없는 생소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일원이었던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즉 요셉은 자기가 속한 단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그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 일은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요셉은 예수님이 들어갈 무덤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혼한 말로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까지는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요19:38) 하지만 자신의 동료 공회원들의 결정의 결과로 예수님이 죽고 나자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은밀한 제자”로서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마가는 요셉 이야기를 마치고서 다시 여인들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고, 천사로 보이는 흰옷 입은 청년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너희들이 들은 것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고대 사본들에서 발견되는대로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난다면 마가는 나름대로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어색하지만 “열린 결말”로 그의 복음서를 끝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용기있게 행동하였고, 여인들은 물러나 지켜보다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끝내는 순간에서까지 제자도는 예수를 따름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제자는 선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선 안으로 들어와서 용기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엄청난 기적이 여인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고 싶다면 큰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고, 큰 사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매일매일 따르는 작은 행동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일상도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내시는 목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목장생활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누어 봅시다.

**목회자 칼럼****사실인데 안 믿으면 안되잖아요?**

언젠가 세례를 받는 친구들과 예수영점모임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하기 좀 힘들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한 방 먹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이들의 대답의 클라이막스는 이 한 마디였습니다. “목사님! 사실이니까요! 사실인데 안 믿으면 안되잖아요!” 와우^^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2천년 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그 사실이 거짓이지는 않습니다. 꼭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일들 대부분을 역사적 사료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료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생명의 삶 첫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부활의 증거들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제자들이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바뀐 데에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둘째,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왜 굳이 예수 부활했다는 전도 메시지를 고수하다가 순교를 했을까요?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당국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잠재울 수 있었던 아주 손쉬운 방법은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있었지만, 당시 당국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만들어 낸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마28:13)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 빈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믿음은 기적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것에서 생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2024년 부활절, 다시 복음 앞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목사-

34068대전시 유성구 반석로11번길90-23(반석동661)

☎(042)826-9191~4, FAX(042)822-0691

http://www.inhappy.org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는 2층 새가족실에서 담임목사와 함께 식사하며 교회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첫째 주는 제외)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3면에 있는 <교회등록절차>를 보시고 새가족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감사

1)고난주간 특새와 금식, 교회대청소로 함께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고난일 성찬예배, 부활절 준비로 섬겨주신 사역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부활절 감사예배

1)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주일이 됩시다.

2)오늘 예배는 1~3부까지 있고 4부는 찬양예배로 인해 없습니다.

3)부활절 절기 헌금은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4)부활절 계란을 나누니 돌아가실 때 받아가세요.

5)부활절 찬양으로 섬겨주신 호산나, 할렐루야, 헤세드 찬양대(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부활절 찬양예배

점심식사 후 2시에 본당에서 부활절 찬양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 시기 바랍니다

*참가팀: 1)3부 오케스트라 2)유아부 3)유초등부 4)조이엘 5)몽골목장 6)기쁨&바기오목장 7)청소년부 8)구마가야목장 9)키르기스스탄목장 10)우크라이나목장 11)튀르키예목장 12)다윗찬무단 *참여해주신 목장의 목원들께 감사드립니다.

4. 목자임명식

다음 주일(4월7일) 4부 예배시간에는 일본도교목장의 목자임명식이 있겠습니다.(김건회목자)

5. 일일특새

4월 일일특새는 다음 월요일(4월8일)에 있습니다.

6. 제6기 기도의 삶 세미나

1)제6기 기도의 삶 세미나가 금주 화요일 4월2일 오후7:30분에 개강합니다.(장소: 2층 미션홀) 2)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분들은 한번은 꼭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섬김을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7. 제3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1)3개월 동안 10개의 중보기도팀에서 기도사역 감당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월은 재정비하는 기간입니다. 삽지로 넣어드린 안내문 보시고, 5월부터 시작할 제3기에도 해보지 않은 중보기도팀에 신청하셔서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QR코드 신청)

8. 제34차 가정교회 목자연합수련회

이번 금~토요일에 열립니다. 14개 교회, 159명의 목자목녀들 외 목회자, 사역팀 196명이 참석합니다. 기도과 여러 분야의 섬김으로 동역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 2024년 가정교회 평신도세미나 안내

4월(양주) 5월(화성,전주,안양) 6월(인천,순천,부산,판교,구미,대전,화성) 7월(대전,충청) 8월(충주,천안,인천) 일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0. 교우소식

1)등록: 송유량성도, 러시아알타이목장(변정주목자) 선택하셨습니다.

성구암송**고린도전서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